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부담 털고 본격 경제 행보

최태원 상의 회장·손경식 경총회장 등과 간담회, 정책 제언 들어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 강조...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생방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털고 본격 경제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6월 18)으로 미뤄짐에 따라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 면담에서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같고 닮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 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막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홍

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에 자리한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들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듣고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후 경제 채널 유튜브 생방송에도 나선다. 역시 경제 관련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노력이다.

이 후보는 구독자 110만명의 ‘전인구 경제 연구소’, ‘와이즈트릿’ (구독자 73만명), ‘이효석 아카데미’ (구독자 39만명),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구독자 25만명) 채널 운영자들과 경제·주식시장 등에 대한 이슈를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후보의 경제 중심 행보에 보조를 맞춘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금융노조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하고, 선대위 산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강준현·오기형 위원장)는 정책 협약식을 연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조정식·이종석 위원장)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 및 첫 대책 회의를 열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및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선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철학 없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는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성장과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제언집을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등 사법개혁 공세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토론회
사법남용 규명 특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올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명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

특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한 불은 끈 만큼 당 지도부의 정부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쟁론’에 출연해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탄핵 방안은) 죽은 카드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청문회는 국민들의 공금함에 관해 자초지종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사위 차원에서는 청문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슈로 부각하는 야권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수원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2일차 도보행진을 벌이고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의 정치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서 원내대표는 당선된 뒤 당 회의에서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종식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혁신당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원내의원단 간 소통을 강화해 의원단이 혁신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내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



민주당 한장민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5·1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주권자 국민이 땀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 냈으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끝난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